

# ‘금의환향’ 화순의 딸 복서 임애지 “LA서도 메달 딸 것”

### 올림픽 동메달 걸고 화순군 환영식 참석 “성원에 감사” 두 달 뒤 전국체전 준비... “다른 선수들도 메달 땀으면”

한국 여자 복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임애지(화순군청)가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복싱 54kg급 동메달을 목에 걸고 고향 화순으로 돌아온 임애지는 남은 일정을 바쁘게 소화하면서도 두 달 뒤 열리는 전국체전에 이어 LA 올림픽까지 내다보고 있다.

임애지는 “그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제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을 준비할 것 같다. 앞으로 국제경기에서도 계속 성적내고 싶다. 2028년 LA 올림픽까지 또 열심히 달리겠다”고 전했다.

임애지는 지난 20일 화순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뜨거운 축하와 환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임애지와 임애지의 부모,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청 복싱팀 박구 감독 등이 참석했다. 임애지는 구 군수로부터 꽃목걸이와 함께 동메달 포상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임애지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권투 글로브를 선물하며 답례했다.

임애지는 화순중과 전남기술과학고를 거쳐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화순군청 복싱 실업팀에서 뛰고 있다.

화순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임애지는 본격적으로 선수의 길을 걸었다. 박 감독이 운영하던 체육관을 찾아 복싱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 시작이었다.

임애지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박 감독은 “빠른 발놀림과 주먹 기술, ‘강인한 의지’를 임애지의 강점으로 꼽는다. 박 감독은 이번 올림픽 내내 초조한 마음으로 대회를 지켜봤다.

파리 올림픽은 2021년 열린 도쿄 대회에 이어 임애지가 두 번째로 출전한 올림픽 무대였다.

임애지는 “도쿄 대회 때는 갑자기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사실 부담감도 있었다. 또 화장하거나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모습은 진짜 맨얼굴인 데다 얼굴에 바세린 바르고 입술에 색도 없고... 그리고 머리망이라고 가발 망처럼

쓰는 게 있는데, 그 모습을 나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부끄러움도 컸었다”고 밝혔다.

엄청난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임애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복싱 54kg급 준결승 진출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여자 복싱 역사를 새로 썼다.

임애지는 “앞으로 나를 포함해 다른 선수들도 메달을 많이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할 당시 목표는 이번 올림픽 메달과 LA 올림픽 출전이였다. 이번에 파리에서 메달을 따면서 이제 다음 목표가 LA 올림픽 출전이 아닌, LA 올림픽 메달로 바뀐 것 같다”며 “경기를 (한국시간으로) 다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했는데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응원에 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났다. 덕분에 끝까지 땀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임애지의 어머니인 이영애 마라톤세상 대표는 “올림픽 출전했을 때 주변에 말을 안 해서 모르고 있던 지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다들 축하한다고 전해줬다”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마주 앉아서 제대로 밥을 못 먹었는데 맛있는 밥 먹이고 싶다. 애지가 올림픽 잘 마치고 돌아와서 다행이고,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참 좋다”고 웃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 여자 복싱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임애지가 20일 화순군청 앞에서 메달을 들고 있다. <화순군청 제공>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  
인천공항이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Supporting your Challenge from Incheon Airport,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Korea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출영식**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선전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패럴림픽 선수단, 파리 감동 잇는다

### 28일 개막...한국, 금 5개 목표

2024 파리 패럴림픽을 목표로 달려온 한국 대표팀 본진이 격전지로 떠났다.

패럴림픽 선수단은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열린 출영식에서 결의를 다졌다.

한국은 오는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9월 8일까지 파리 일원에서 펼쳐지는 패럴림픽에 17개 종목, 177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5개(탁구3, 보치아1, 사격1) 이상의 금메달 획득, 종합 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선수들도 메달 사냥을 위해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광주에서는 조재관 대표팀 감독이 사령탑으로 있는 탁구의 박진철·김영건·김정길·서수연·김성욱(이상 광주시청), 양궁의 김옥금·정진영(이상 광주시청), 사격의 박동안(광주시청), 조정의 김세정(광주장애인조정연맹·롯데캐미컬), 보치아의 강선희(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한전KPS), 육상(투포환)의 정지성(광주장애인육상연맹·삼호개발) 등 6개 종목 16명의 선수단이 나선다.

전남에서는 사격의 이윤리(완도군청), 펜싱의 백경혜(한전KDN), 배드민턴의 유수영·권현아·정겨울(이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궁의 장경숙(한전KDN) 등 4개 종목 8명의 선수단이 출격한다.

이날 출영식에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배동현 선수단장, 백경일 선수부단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향한 응원을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사전 캠프 선수단 144명이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통합의 가치 실현의 장인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

선수촌은 야외 곳곳에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넣고 휠체어 사용자와 안내·보조견 등이 분수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하는 등 장애인 선수들의 이동 편의에 맞춰 공공장소·도로·보도·횡단보도를 단장했다.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메달을 놓고 182개국 4400여명이 벌이는 이번 대회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난민 패럴림픽 선수단 9명(선수 8명, 가이드러너 1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1억2000만명이 넘는 강제이주민을 대표해 육상·역도·탁구·태권도·파라트라이애슬론·휠체어펜싱 등 6개 종목에 출전해 난민의 투지와 영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패럴림픽 개막식은 오는 28일 오후 8시 파리 콩코드 광장과 샹젤리제 거리에서 치러진다.

한국 대표팀의 첫 임정은 오는 29일 오전8시30분 포트 드 라 샤펬 아래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단·복식 조별예선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원조 해결사’ 최형우 다시 뛰다

### 부상 80%이상 회복...주말 실전 재개 위해 분주

KIA 타이거즈의 ‘원조해결사’ 최형우가 다시 칼을 간다.

우측 내복사근 손상으로 자리를 비운 최형우가 주말 실전 재개를 목표로 바빠 움직이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 6일 KT와의 홈경기에서 8회 타격 도중 옆구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창진과 교체됐다.

이후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내복사근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7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최형우 부상 당시 이범호 감독은 “2주 뒤에 다시 검진을 하고 다음 스케줄을 잡아야 할 것 같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옆구리 부위라서 다음 검진 뒤 복귀 날짜를 생각하겠다”며 3~4주 정도 공백을 예상했다.

그리고 19일 재검진을 한 최형우는 초음파 검사 결과 부상 부위가 80% 이상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순조롭게 회복이 이뤄지면서 최형우는 기술 훈련에 돌입, 부상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몸상태도 좋고 의지도 강하다.

이범호 감독은 21일 “각정이 되지만 ‘아프지 않은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기술훈련 해서 움직이는 건 괜찮다고 해 훈련을 시작하게 했다”며 “내일까지 훈련하고 주말에 경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주말 경기 어떻게 치를지 보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우는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뛰다”를 이야기해 온 철인이다.

지난해 9월 24일 KT전에서 쇄골 분쇄 골절이라는 큰 부상도 당했지만 정상적으로 지난 2월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올 시즌을 준비했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캠프를 소화한 최형우는 정상적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나성범이 시범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

면서 초반 자리를 비웠지만 최형우는 베테랑다운 활약으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불혹’의 최형우는 올 시즌 99경기에 나와 367타수 103안타, 타율 0.281 19홈런 93타점을 수확했다. 나이를 잊은 활약을 선보인 그는 득점권에서는 0.333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9차례 결승타도 장식했다.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만루홈런 기록 등도 작성하면서 최형우는 원조 해결사다운 활약을 해줬다. 여기에 3년 차 김도영이 새로운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신구 해결사’가 KIA의 1 질주를 이끌었다.

100경기과 100타점을 앞에 두고 절음을 멈췄던 최형우가 “후배들과 더 많이 가을 야구를 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MLB 김하성, 첫 부상자 명단에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 김하성(28)이 미국프로야구(MLB) 진출 후 처음으로 부상자명단(IL)에 올랐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21일 김하성을 열흘짜리 IL에 올렸으며 등재일은 20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하성은 30일이나 다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부상자명단 등재 사유는 잘 알려진 대로 오른쪽 어깨 염증이다.

김하성은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3회초 안타를 치고 출루한 뒤 상대 투수의 견제 때 1루에 슬라이딩하고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연합뉴스